**<본캐와 부캐 사이 인터뷰 초안 - 강현구>**

1. 자기소개 (전공, 하고 계시는 일 등)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자연, 인문, 경영 분야를 찍고 공대를 재학중인 강현구입니다. 학부 시절 본 전공은 수학교육(자연), 이중 전공으로 사회학(인문)을 , 경영학회 MCC를 수료했습니다. 현재는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석사 1년차 재학중입니다.

2. 사범대학 졸업 후, 새로운 분야(데이터 연구)에 도전하게 되신 계기

데이터 연구여야 했다가 아닌, 데이터 연구에도 도전했다가 좀 더 맞겠네요. 언젠가는 '교육'을 하고 싶다 란 생각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 교직에 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도 '교육' 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부터 성장해야 갰더라구요. 그렇게 1)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 2)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나름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지만 막상 졸업하니 어떻게 먹고 살까 싶었죠. 특히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발전시킨 기저에는 항상 기술이 있었고요. 특히나 최근 수많은 분야에서 AI, 머신 러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즉, 기술 발전,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군 장교 활동을 전환점으로 삼아 데이터  연구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3. 하고 계신 일(데이터 연구),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

데이터 과학은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통찰을 추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기존의 통계 분석부터 최근 부각되는 ML, AL, Deep learning 이 모두 포함되죠. 말은 어려워도 결국 데이터 연구란 '좋은 도구 개발' 이라 생각합니다. 도구를 만드는 것에 끝을 보는 게 아닌, 현장에서 사용을 해 봐야겠죠. 언젠가는 교육 분야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하여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4. 대학에서 배웠던 교육(혹은 수학교육)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먼저 고백을 하나 해야겠네요. 전 1학년 때부터 수학교육과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대학 수학이 너무 어려웠기도 했지만, '이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는데 필요한가?' 란 의문이 해소가 안되더라구요. 그 대신 좋은 교육은 무엇이며, 선생님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제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왔습니다. 만약 다른 전공을 가졌더라면 좀 더 편했을지라도 지금처럼 스스로에 대해 깊이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Connecting Dots’는 인생의 진리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멀리 하고 싶었던 수학 전공이 대학원 생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죠(공대는 수학이 필요하니까요). 그 외에도 사회학과를 통해 익힌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경영학회를 통해 기른 소통 능력, 군 장교 생활을 통해 기른 끈기는 각각 저의 장점으로 남아있어요. 인생의 목표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치한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혹 맞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수학 전공으로부터 도망친 후 6년 만에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5. 진로를 고민하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진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하죠. 전 이 질문도 참 부담스러웠어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구요. 20년 넘게 스스로를 무색 무취한 사람으로 여겨왔어요.  좋아하는 게 확실한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지금도 여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진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로 탐색을 나만의 보물 찾기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단, 보물 지도가 없이 말이죠. 지형을 아무리 살펴봐도, 결국 땅을 파보지 않으면 보물이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지형을 살펴보지 않고 땅을 파면 힘들기만 하겠죠. 남들의 지도를 보면 효율적이긴 해도, 결국 나의 보물은 못 찾을 수도 있죠. 반면 내 보물을 찾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죠. 하지만 계속 나만의 보물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나와 맞지 않구나', '오 이건 생각보다 나랑 맞네?' 라고 말이죠. 근육도 추가로 붙더라구요. 새로운 일이라도 일단 시도해볼 힘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심적 근육이요.

저의 보물 찾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석사 해보고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전 대학원 생활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대학원을 선택하고 이겨내면서 얻은 단서와 근육은 남아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참고로 전 보물을 못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실패담으로 볼지 몰라도, 저 스스로 성공적인 성장기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물론 계속 보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성장하며,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 중 하나 더라구요. 그러니 저와 같이 보물을 찾아 떠날 사람 또 없을까요?